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에 도전자들 단일화 관심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다양한 성과 바탕 재도전 확실
김용태·오경미·정성홍 '혁신' 기치 출사표
후보 3명 단일화 논의…성사 여부 촉각

이정선

김용태

오경미

정성홍

광주시교육감 선거전은 일찍부터 점화한 양상이다.

이정선(66) 현 교육감의 재도전이 확실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용태(61) 전 노무현 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 교장, 오경미(62)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63) 2022 광주시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보 등 4명의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맞서 출마가 예상되는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광주교대 총장을 거쳐 직선 4기 광주교육을 이끌어온 이 교육감은 실적으로 교육 행정능력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다양한 실력'을 기치로 정책을 펼쳐 굵직한 성과를 냈다. 수업 혁신을 통해 '실력 광주' 위상을 복원하는데 성공했으며, 직업계고 재편으로 '특성화고 붐'을 일으켰다. 교육부 공모사업 등으로 831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하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등급, 시·도교육감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 등 10개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획득하며 '광주교육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 교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전자공고 교장, 전교조 광주지부장,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포용력이 강점으로 꼽힌다는 게 측근의 전언이다.

그는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교육청을 광주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면서 "교실 속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광주교육 전체를 새롭게 세우겠다며, 광주교육의 대전환, 교실에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또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교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교육혁신은 공허한 구호에 머물 뿐"이라면서 "교실을 모두의 꿈을 담은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고, 교사는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으로 ▲교실에서 시작하는 광주교육 대전환 ▲5월 정신에 기반한 정의로운 민주시민 양성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광주형 키움 프로그램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 세우는 광주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교사와 시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중등교육지원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등 36여 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활동했다.

학교에서 경험을 쌓은 것은 물론, 교육행정 업무를 22년 동안 수행한 경험과 동료 교사들로부터 친화력과 소통능력이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되지만, 교실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실,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교육은 단순히 현재를 유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면서 "광주의 교육을 더 깊고, 더 넓게,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 교육 ▲교사가 자긍심을 느끼는 교육환경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 ▲열린 소통과 협력의 교육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정성홍 2022 광주시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재도전하는 그는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광주전남시민연대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지냈다. 그는 36년 동안 학생 곁을 지키면서 핀란드, 일본 등지의 선진교육을 배우고 현장에 접목하려는 등 혁신교육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에게도, 꿈을 키우고 싶은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경쟁의 희생양이 된 학생과 학교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고 '모두가 빛나는 광주교육'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어 교육 본연의 힘을 되살리겠다"면서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를 치유하고, 학습 결손을 메우며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 행복·안전 교육 ▲교육 공동체 회복 ▲교육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보장 ▲미래교육 혁신 등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들간 단일화 여부도 주목된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3명은 최근 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새로운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는 가치관·의지·신념이 같다면 후보를 하나로 한다는데 원론적인 공감을 가졌고 단일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일화 시기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방식은 후보 간 직접 단일화보다는 일단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논의하고 있는 단일화 과정에 합류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한 출마 예정자의 직함에 '노무현'이란 이름이 붙느냐 여부에 따라 지지율이 1위에서 4위를 오가면서 다른 후보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언론사의 여론조사 불참을 선언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상수가 된만큼 결국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가한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유권자 의식조사(선거관심도)에서 교육감이 43.1%로 가장 낮았다. 광역단체장은 74.1%, 기초단체장은 71.3%, 지방의원 53.1%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감

김대중 "교육 대전환 위해 4년 더 필요"
교육계 관료·교수·전교조 출신 다수 출마
동·서부권 후보 분산 지역별 판세 변수

김대중

강숙영

김해룡

문승태

장관호

최대욱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전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6명이 출마를 결심한 가운데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도 아직 있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김대중 교육감에 맞서 교육행정과 현장경험으로 다져진 중량감 있는 교육계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김대중(64) 현 교육감과 강숙영(63) 교육학 박사, 김해룡(60)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승태(62) 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 장관호(58)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64) 전 한국교총 부회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전남 교육이 처한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미래교육 방향 관련 비전을 제시하며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후보도 동·서부권에 분산돼 있어, 시민사회의 단일화 여부에 따른 선거구도와 지역별 판세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핵심 교육정책인 글로컬 교육과 교육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다시 4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요구에 출마가 유력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재선 도전 여부와 관련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3년 동안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교육의 본질 회복과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 '공존교실', '2030교실' 운영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였고, 학생 주도 기후환경 캠페인, 헌법교육, 전남 의(義) 교육 강화 등은 교육이 삶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 교육감은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줄곧 수위를 달리는 가운데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30미래교실, 학생교육수당,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주요 실적을 내세우며 수성을 위한 재선 가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출신인 강숙영 교육학 박사는 전남 최초 여성교육감을 향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 박사는 "교육은 태아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는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전남교육을 국가책임 교육 슬로건을 바탕으로 ▲학력격차 해소 ▲지역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진로·진학 지원 체계의 강화 ▲디지털 혁신 교육 전환 ▲인성·시민교육 ▲글로벌 교류 확대 ▲교권 회복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강 박사는 전남도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여수 충무고 교장, 장성 문양고 교장, 전남도교육청 자연 탐구원 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중등 음악 교육 연구회 자문위원, 김대중재단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도 교육감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김 전 교육장은 "학생들의 웃음과 교직원의 열정이 살아 있는 교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전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라며 "학생·현장·미래중심의 철학으로 전남교육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며 출마의 뜻을 피력했다.

김 전 교육장은 "AI와 디지털 전환, 생태·해양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미래교육 생태계를 열어가겠다"라며 "오직 학생, 오직 교육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학생 한명 한명의 가능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순천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에 들어선 김 전 교육장은 여수화양고 교감과 순천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장학관, 여수충덕중학교 교장,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교육 특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목포대 지역교육혁신위원, 전남 교육·사회 시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도 입지를 굳혔다.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정책을 설계하고 초·중·고와 대학에서 37년간 교편을 잡아 정책과 실무를 겸비한 문승태 부총장은 전남 22개 시·군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기치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문 부총장은 '삶의 가치, 전남교육자치로 더 빛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신념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부총장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순천대 기획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남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통합의과대학설립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교사이자 교육운동가로 현장을 지켜온 장 전 지부장은 시국사건 임용 제외 특별법으로 영광여중에 첫 발령을 받아 전교조 전국 정책실장으로 학교 민주화·학생 인권보장 정책을 주도해왔다. 담임교사와 교무, 학생부장으로 교직을 25년간 한 뒤 올해 2월 오룡중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장 전 지부장은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새 전남교육 희망의 길을 도민과 함께 존중·협력·자율·자치의 교육을 실현하고 전남을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중심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장 전 지부장은 전남대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한 장 전 지부장은 전남교원포럼 상임대표와 전남교육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과 국민주권교육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거문중학교 교장 출신인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부회장은 학생 인권과 교원들의 교권이 조화를 이뤄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상호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공부하는 에듀토피아(Edutopia) 전남교육을 건설'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 붕괴 현상의 근본 원인부터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전남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대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최 전 부회장은 고려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운영위원 겸 이사로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